

보성군, 군민 의견 → 행정 반영 '제안 공모'

일자리·경제 등 7가지 5월14일까지 접수

보성군이 군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행정에 즉각 반영하는 '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오는 5월14일까지 군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실현하고자 국민 대

상으로 제안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 분야는 △일자리·경제 △농림·어업·축산·산림 △보건·복지·여성 △건설·안전·환경 △문화·관광 △일반행정 △기타 등 총 7가지이다.

보성 군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지역·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국민신문고 일반제안, 군 누리집,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향후 사업 부서의 사전 검증, 제안 1차 심사, 군정조정위원회 2차 심사 등을 거쳐 6월 최종 선정될 예정이며, 보성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반영 추진할 계획이다.

제안 선정자에게는 금상 100만원, 은상 50만원, 동상 30만원, 장려상 20만원, 노력상 1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제안 제도는 국민의

목소리를 생각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실현하는 국민 정책 참여의 실질적 제도이다"며 "제안 제도가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참여방법, 제안 수용의 적극성 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성군 제안 공모는 총 510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8건이 최종 선정됐다. 양기람 기자

치매 예방 돌봄 관리 강화 온힘 보성군, 국고지원 확대 등

보성군은 지난 24일 보성군 치매안심센터를 찾은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에게 추진 중인 전남형 치매관리종합대책 사업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 지원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보성군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한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 하태길 노인건강과장, 전남도 이상삼 보건복지국장, 전남광역치매센터 관계자 등 총 14명은 기관 전반을 둘러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회에서 치매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건의 사항은 치매환자 및 가족 돌봄 서비스 강화, 스마트 기술 활용 어르신 돌봄 지원, 정부 차원의 치매 인식 개선 사업 확대 등이다. 양기람 기자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운영 순천시, 건전 여가 문화 조성

순천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4년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은 새벽과 저녁에 주 5일(월-금) 1시간씩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체육 인구가 많거나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야외광장, 공원 등에서 생활체육 전문지도자를 배정하여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생활체조, 국학기공으로 구성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시간에 수업장소를 방문하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다.

현재 운영 중인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은 △동천광장(생활체조, 오후 7시) △신대광장(생활체조, 오후 7시 30분) △서면광장(생활체조, 오후 8시) △금당버드내공원(국학기공, 오전 6시 30분) △조례호수공원(국학기공, 오전 6시/생활체조, 오후 8시 20분) 등 총 5개소이다.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체육회(061-749-3417)로 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수산정책 설명회 29일 수협회의실

여수시는 29일 오전 9시 여수수협 대회의실에서 지역 수산인과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수산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수산인과의 소통의 장을 복원해 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 수산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마련됐다.

행사는 2024년 수산 정책 방향과 주요 세부 과제에 대한 설명과 참석자와의 질의응답과 의견청취 순서로 진행된다.

여수시는 올해 '수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을!' 목표로 △미래 대응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수립 운영 △안심할 수 있는 수산환경 구축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어촌조성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수산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보성군, 농기계 순회수리 전남도농업기술원 합동 추진

보성군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남도농업기술원과 합동 '농기계 순회수리'를 추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순회 수리는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 사용을 위해 23일 울어면 선암리(상선, 하선, 모암), 24일 겸백면 윤림리(외백, 내백, 상장), 25일 득량면 도촌리(중산)에 방문해 경운기, 관리기, 예초기, 방제기 등 농기계 점검 수리와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24일에는 '농촌 마을 찾아가는 교통안전 지원서비스'를 연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보성군농업기술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보성경찰서 4개 기관이 함께 차·만·손(차를 만나면 보행자가 손을 들어 소통하는 보행문화 실천 운동) 교육, 야광 지팡이, 경광등, 반사판 등 안전 물품 배부, 도로 시설 현장점검 및 결함 요소 발굴 등을 진행했다.

보성군은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수리와 농기계 안전교육, 교통안전 지원 서비스 등을 추진해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일 방침이다. 양기람 기자

순천시, 전통문화 특별체험 운영

순천시는 오는 5월4일부터 6월29일까지 선비문화체험학습관에서 '상반기 전통문화 특별체험교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전통문화 특별체험교실은 '남녀노소 함께하는 전통문화'라는 주제로 △한복의 품격, 옥리단길을 걷다 △다산학당 △우리 가족 전통 놀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강생은 29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한복의 품격, 옥리단길을 걷다' 프로그램에서는 예절교육과 다례·다식 그리고 옥리단길 탐방을 체험할 수 있다. 우리 복식과 예절에 대해 제대로 배우며, 옥리단길 곳곳을 지키고 있는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지역의 주춧돌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다산학당'은 정약용이라는 인물을 주제로 그의 생애와 사상을 배운다. 현대사를 살아가며 어떤, 그리고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배울 수 있는 인문학 강좌이다.

'오감만족 전통 놀이터'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진행되는 효사랑 카네이션 원예, 한지공예, 수묵화, 떡케이크 만들기 등 4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통문화에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본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일정 및 참가 신청은 순천시 선비문화체험학습관(061-749-3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24일 고흥군이 나로우주센터에서 고흥우주항공해설사 15명을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항공해설사 나로우주센터 현장답사

고흥군이 지난 24일 나로우주센터에서 고흥우주항공해설사 15명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진행했다.

28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우주기술 및 동향에 대한 정보 교류와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고흥군의 우주항공분야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오는 5월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고흥우주항공축제에 앞서 나로우주

센터로 직접 방문, 전문가로부터 최신 우주기술 및 다양한 이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직접 전달받았다.

고흥군은 지난 3월 전국 최초 우주항공해설사 양성과정 1기 교육을 진행해 15명의 수료생을 양성했다. 우주항공해설사는 고흥군의 우주항공 미래 전략산업 및 풍부한 우주인프라 정보 등 양질의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은혜 해설사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최신 우주 동향을 공유한 소중한 자리였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과학열차, 친환경 별 관측 프리미엄 투어 상품 등 우주

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브랜드를 강화할 우주투어 상품을 신규 개발하고 지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며 "우주항공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전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해설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축제부터 활동하는 우주항공해설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군 관광의 한 축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혜 해설사는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최신 우주 동향을 공유한 소중한 자리였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을 알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 전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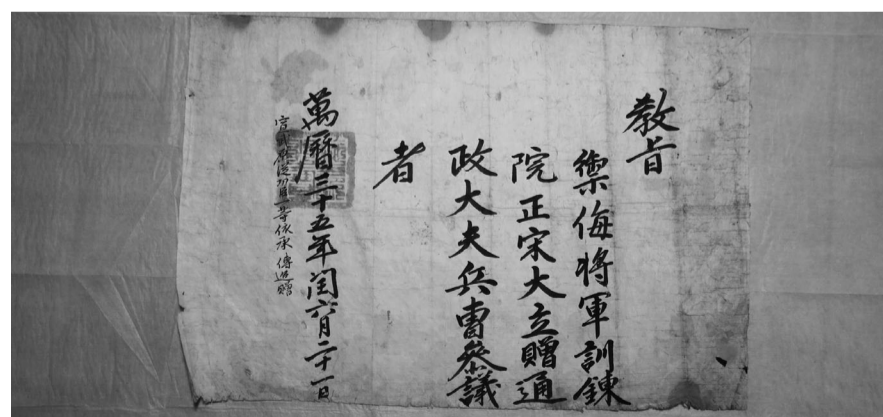
고흥군은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 (사진)가 전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 됐다고 28일 밝혔다.

전남도가 이번에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는 고흥군 대서면 화산리에 소재한 여산송씨 고흥문중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재동서원에 보관 중인 고문서 일괄이다.

앞으로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 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라남도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로 확정될 예정이다.

고흥 재동서원 소장 고문서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전후한 고문서 73점으로 문서류 71점과 전적류 2책이다.

문서류는 고신 교지 58매, 고신 교첩 9매, 영패 1매, 녹패 1매, 상서 1매, 수조항기 1책이다. 전적류는 정충록(내사본), 선무원종공신녹권이다. 157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 고흥의 여산송씨 문중에서 전해오는 무관직 교지와 교첩이 다수이다.



해당 고문서의 관련 인물은 총 14명으로 여산송씨(礪山宋氏) 고흥 입향조 서재(西齋) 송간(松侃, 1405~1480)을 비롯하여 그의 현손으로 1583년 아산진(阿山鎭)을 지켜 선조로부터 <정충록>을 하사 받은 송순례(宋純禮)와 처 오씨부인이자.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의 군관으로 활동한 송간의 현손 송한(松漢), 송한의 7세손 송중호, 송순례의 아들 송전상, 손자 송흥연, 송흥원, 증손자 송경룡, 송시

필이다. 아울러 송간의 6세손 송관, 송관의 아들 송대립, 손자 송침, 증손자 송문상, 송간의 11세손 송세호 등이다.

정충록은 금속활자본으로 1585년 7월에 아산병마만호 송순례에게 선조 임금이 하사했다는 기록인 내사기와 임금이 하사품에 사용한 인장인 '선사지기(宣賜之記)'의 보인(寶印)이 찍혀 있다. 이번 지정 예고 대상은 복사본과 필사본을 제외한 주본 1책이다.

양기람 기자